

이오플로우, 중국 최대 당뇨기기 업체 '시노케어'와 中 합작사 설립**▶ 신 의료기술 '이오판치' 중국 진출 위한 현지 제조공장 착공 및 임상·인허가 본격 추진****▶ 세계 최대 당뇨인구가 있는 중국시장 진출로 높은 성장 기대**

[2021-10-27] 이오플로우가 세계 최대 당뇨인구 국가인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KQ, 김재진 대표이사)는 중국 최대 당뇨전문 의료기기 회사인 시노케어(Changsha Sinocare Inc., 300298.SZ)와 합작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와 시노케어는 이오플로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솔루션 '이오판치'를 비롯해 이오플로우의 당뇨용 웨어러블 솔루션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내에 합작사를 설립하여 중국시장 전용 이오판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를 위해 총 9,000만위안(약 166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이오플로우는 이 중 3,600만위안(약 66억원)을 투자하여 40% 지분을 확보한다. 또한 위와는 별도로 양사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노케어는 약 5,000만위안(약 92억원)에 해당하는 이오플로우의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를 결정했다.

시노케어는 2002년 설립된 중국 최대 혈당측정 의료기기 전문회사로 지난 2012년 선전증권거래소(SHE)에 상장 이후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5천억 원(약 137억 위안) 수준이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중국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당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안정적인 진입을, 시노케어는 기존의 주력 제품인 혈당측정 및 POCT 제품을 통한 당뇨 진단 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까지 포함하는 당뇨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오플로우의 주요 투자사이자 중국 내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 동안 위 협력관계를 중재해 온 비전크리에이터의 정주용 대표이사는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은 글로벌 당뇨인구 1위인 중국 시장에 필수적인 기술이란 확신이 있었고, 예상대로 중국의 대표적인 당뇨기기 파트너사와 협력을 맺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오플로우의 중국 진출 사례는 향후 한국 헬스케어 기업의 중국 시장으로의 확장에 모범적 사례로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노케어의 리 샤오보 대표이사는 "시노케어가 이오플로우와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히 시노케어가 개발한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과 이오플로우의 스마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가 만나 향후 중국 내 당뇨인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이번 합작사 설립을 통해 당뇨 인구가 많지만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가 상용화되지 않은 중국 시장에 이오파치의 뛰어난 성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파치의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늘의 중국 진출 발표는 그러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오파치는 주입선 없이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제품으로 최대 3.5일(84시간)까지 인슐린 주입이 가능하며 별도 컨트롤러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혁신 제품으로 세계 당뇨 시장 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